

여름호

동국대학교의료원 MAGAZINE
2015 Summer | VOL. 3

여름, 느티나무이고 싶습니다.

세월만큼 넓어진 그늘을 펼치고
넉넉한 품 한자락 남겨두고 싶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동행



여름, 빨래이고 싶습니다.
장대로 높이 추켜올린 빨랫줄에 한가로이 매달려
쨍쨍한 햇볕 온몸으로 받아내고
애간장 태우다 찾아오는 내 님 같은 말간 바람에
무심히 몸을 맡겨 허공을 휘젓고 싶습니다.

여름, 느티나무이고 싶습니다.
세월만큼 넓어진 그늘을 마을 어귀에 펼쳐두고
한낮 더위에 등 떠밀려 나온 이웃들의 환한 웃음엔
무성한 잎 흔들며 장단 맞추고
깊은 한숨은 가지로 손사래 쳐 날려버리는
넉넉한 품 한자락 남겨두고 싶습니다.

여름, 청춘이고 싶습니다.
뿌리째 흔들려야 나무에 물이 오르듯
무모한 객기와 껌껌한 번민에
흔들리고 아플지언정 꺾이지 않는 열정으로
가지를 뻗치고 잎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태양보다 더 뜨거운 청춘으로 살고 싶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동행
동국대학교의료원 MAGAZINE
2015 Summer | VOL.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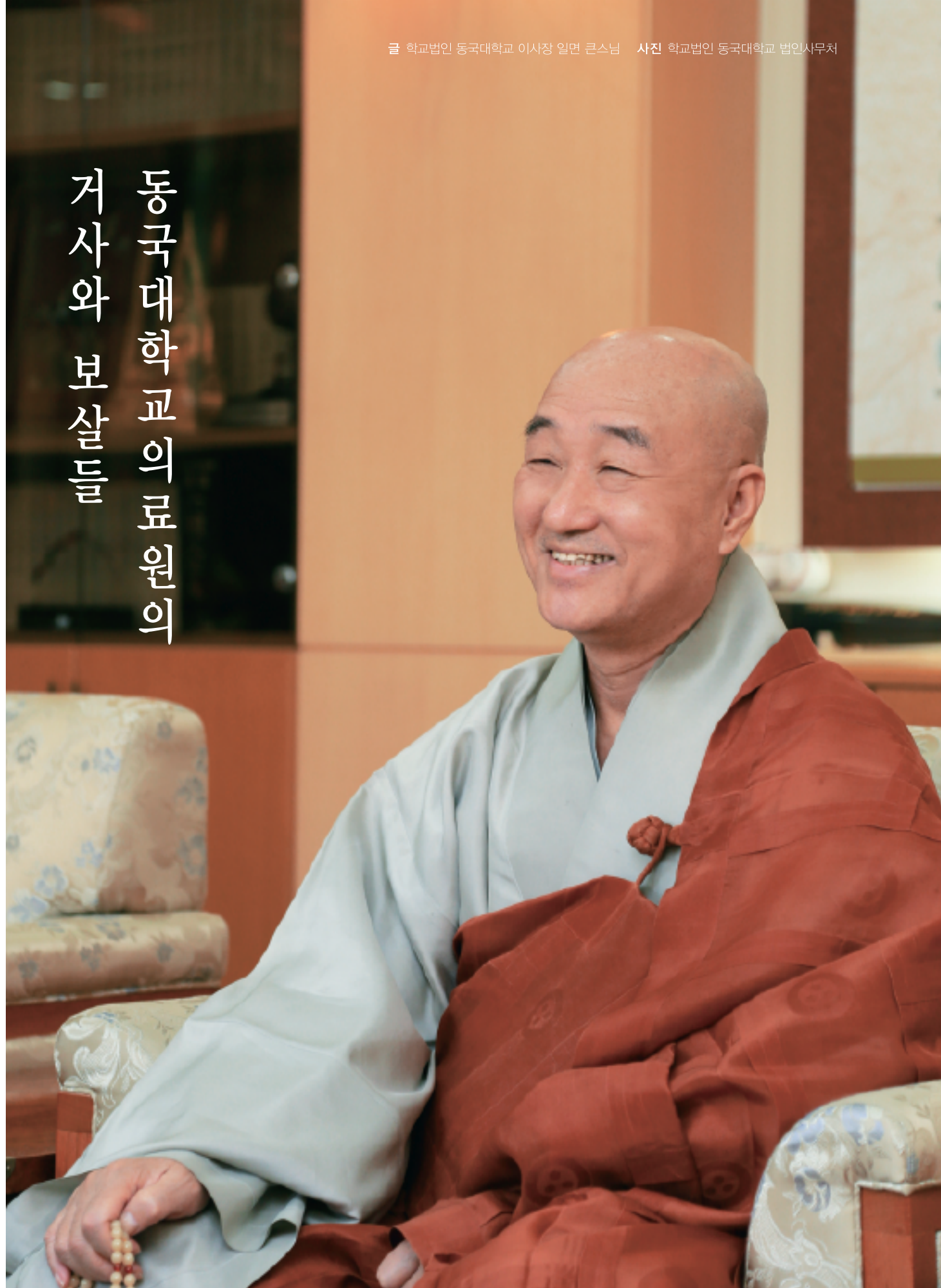
- 04 Letter 동국대학교의료원의 거사와 보살들
- 06 Focus 5W1H로 알아보는 의료기관인증평가
- 08 Good Doctor 사람과 사람으로 만나는 한방진료
- 11 Introduction 한 · 양방 공동주치의제 서비스
- 12 Column_1 현대인의 가장 흔한 장질환 과민성 장증후군
- 14 Column_2 비만은 병입니다
- 16 Essay 감출수록 드러나는 자리에 서다
- 18 Travel 벽화와 목어가 아름다운 절 보광사
- 20 Taste 약이 되는 사찰음식 이야기
- 22 동국보감 우황청심원(牛黃淸心元) 제대로 알고 먹자
- 24 Smart Tip 건강을 지키는 야외활동 응급처치
- 25 Zoom in Dongguk DUMC NEWS
- 31 Together 발전기금 안내
- 35 진료일정 안내

Name Story
길은 혼자 걸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인생길은 길동무와 함께 하여야 더 행복합니다.
휘청일 때 손 내밀어주고 힘들면 어깨를 내주고 지친 숨소리에 귀 기울여주며
나란히 걷는 이가 있다면, 한걸음 내딛는 발길이 한결 가벼울 것입니다.
동국대학교의료원이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동행합니다.

발행인 이진호 **발행처** 동국대학교의료원
발행일 2015년 6월 1일 (통권 3호)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
대표전화 1577 · 7000 **홈페이지** www.dumc.or.kr
기획·편집·디자인 동국대학교의료원 편집위원회
인쇄 (주)신화프린팅 031 · 905 · 2727

동국대학교의료원의 거사와 보살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일면(日面) 큰스님



가끔 남산자락을 따라 흘러내리는 신록의 물결을 바라보면서 봄처럼 아름답고 잔인한 계절도 없다는 상념에 잠기곤 합니다. 꽃이 피어서 기뻐던 것도 잠시, 질푸른 녹음으로 옷을 갈아입으며 변화를 거듭하는 자연에 비하면 인간은 참으로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노래했던 시인의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떠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은 아름다운 것인지도 모릅니다.

꽃은 피면서 지고, 지면서 핍니다. 이것이 있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습니다. 남은 나이고 나는 남입니다. 모든 것은 상호의존하면서 존재합니다. 이처럼 세상과 내가 하나임을 깨달을 때 모든 생명은 더욱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한계에 대한 절망과 죽음에 대한 불안도 사라집니다. 깨달음의 환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고 치유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나 한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온 우주 만물의 기운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생명은 그만큼 귀한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저는 평소 내 생명뿐만 아니라 남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나누어 갖는 것이야말로 생명공양이며, 이를 실천할 때 우리들 마음에 평화가 깃든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으로 지난 10여 년 전부터 장기기증운동, 헌혈과 혈소판 공여지원 환자돕기 지원사업을 전개하면서 부처님의 동체대비(同體大悲) 사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제38대 이사장으로 부임하면서 동국대학교의료원을 가장 먼저 방문했던 것도 이런 관심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동국대학교의료원은 인간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의학과 불교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한 대학병원답게 다양한 분야에서 체계적인 진료와 수술 시스템을 구축하여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관계자 여러분이 해외 의료봉사와 맞춤형 의료봉사는 물론 소외지역 주민들에게 따듯하고 훈훈한 마음을 담아 난방비와 연탄지원 등도 하고 있어 고마워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수고를 아끼지 않고 동국대학교의료원의 발전에 헌신하고 계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분이야말로 몸과 마음의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치유하면서 부처님의 자비심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거사이며 보살입니다.

앞으로도 동국대학교의료원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전 의료를 지향하는 동국대학교일산병원 ·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의료기관인증 획득

동국대학교일산병원과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의료기관 인증'을 성공적으로 획득했다.

의료기관인증이란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국제적 기준으로 의료기관을 평가하는 제도로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자격을 부여한다. 따라서 이번 인증 획득은 본원이 환자 안전과 질 향상 그리고 환자 안전 시스템까지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병원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2011년도에 1주기 의료기관인증을 획득한 바 있고, 2015년에 성공적으로 2주기 의료기관인증을 획득하여 2015년 2월 24일부터 2019년 2월 23일까지 4년 동안 2주기 인증을 획득한 의료기관으로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은 2015년 1월 8일부터 2019년 1월 7일까지 4년 동안 인증의료기관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5W1H로 알아보는 의료기관인증평가

WHO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의료기관 인증제도 및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각종 평가 업무를 통한 · 수행하여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유지 ·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 되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설립은 [의료법] 제58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한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는 인증전담기관이다.

조사위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중간관리수준 또는 임상전문가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의사, 간호사, 약사, 영양사, 의무기록사, 병원행정전문가 등 다양한 직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WHEN

의료기관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시기를 자율적으로 정하여 인증조사를 신청하며 조사일정을 인증원과 협의를 통하여 의료기관 종별 및 병상 규모에 따라 조사기간과 조사위원수를 결정한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2014년 12월 16일부터 19일까지,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은 2014년 11월 5일부터 6일까지 조사를 받고 의료기관인증을 획득했다.

인증을 획득하면 4년동안 인증이 유효하며 4년 후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제는 의료기관이 지속적으로 의료의 질 향상 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증 유효기간 중에도 의료기관이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인증원에 보고하고 있다.

WHERE

의료서비스 제공 과정에 대한 전수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모든 곳을 방문하여 조사한다. 환자의 치료가 이루어지는 접점 부서인 병동, 중환자실, 치료실, 검사실, 진료실, 수술실, 응급실 등은 집중적인 조사를 한다.

직원과 환자를 면담하기 위해 병실부터 의국, 미화부 등의 휴게실도 조사대상이다. △낙상방지 시설을 파악하기 위해 샤워장과 화장실 △의료기관의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한 온 · 습도 관리 현황 파악을 위해 보일러실과 기계실 △약물관리 평가를 위한 약제팀(한방병원은 한방약제실, 탕전실) △의료폐기물의 감염관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의료폐기물 처리장 등 한 마디로 지하에서 옥상까지 병원 구석구석 모든 곳을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충족하는지를 평가한다.

WHAT

인증기준은 의료법 제58조3(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의 1항에 명시된 사항으로 환자의 권리와 안전,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의료서비스의 제공과정 및 성과, 의료기관의 조직 인력관리 및 운영, 환자만족도 등의 주요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주기 인증기준은 기본가치체계, 환자진료체계, 행정관리체계, 성과관리체계 등 4개 영역(Domain)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537개의 조사항목(Measurable)을 평가한다.

한방병원의 인증기준은 성과관리체계를 제외한 3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41개의 조사항목(Measurable)을 평가한다. 평가조사단은 규정, 지침, 절차, 프로그램, 조직체계의 수립, 수행여부, 관리 및 개선 여부 평가와 개별교육, 숙지, 인지, 수행 정도를 확인한다.

HOW

인증의 핵심가치는 '환자의 안전, 질 향상'이다. 조사위원은 의료기관이 이 원칙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를 갖추고 전 교직원이 일관되게 수행하는지 여부와 질 향상을 위한 기관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환자의 시각으로 조사한다.

여러 명의 조사위원이 '의료기관이 정한 규정 내용과 그에 따른 수행과정, 수행결과, 결과에 따른 개선활동 등'을 추적조사 방법(Tracer Methodology)을 적용하여 진행한다.

추적조사방법은 직원면담, 환자(또는 보호자)면담, 현장 관찰, 경영진 인터뷰, 의무기록 및 관련 자료 검토 등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환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실제 경로'를 따라(추적)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WHY

의료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의료의 질을 확보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인증제는 순위를 정하는 상대평가와는 달리, 의료기관의 인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는 절대평가의 성격을 가진 제도이다. 이에 환자에게 안전하고 질적으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이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최종적으로는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증제가 시행되고 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 일산한방병원은 앞으로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의료서비스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더욱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사람과 사람으로 만나는 한방진료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침구과
김은정 교수

“한의학의 경우 환자를 변증하고 변별하는 정보의 소스가 주로 환자와의 대화나 접촉을 통해 나와요. 환자와 친해질수록 병의 원인을 찾고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죠.”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침구과 김은정 교수는 ‘망문문절(望聞問切, 한방에서 환자를 진찰하는 방법)’을 한의학의 매력으로 꼽았다. 환자 상태를 보고(望), 듣고(聞), 묻고(問), 만지는(切, 맥진 포함) 과정에서 의사와 환자가 ‘사람과 사람’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구안와사(안면마비) 환자에겐 그러한 ‘인간적 만남’이 더 요구된다.

그는 진료 시간 대부분을
환자 이야기를 들어주는 데
할애한다.
그럴 땐 의사와 환자가 아닌,
가까운 이웃이라도 만난 듯
환자의 심리 상태에
귀 기울여주고
예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준다.

얼굴에 증상이 나타나 더 고통스런 구안와사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에서 이곳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으로 자리를 옮긴 지 3년 차인 김 교수의 주요 진료과목은 구안와사다. 구안와사는 눈과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 비뚤어지는 얼굴 형상을 표현한 병명으로, 최근 성별·연령 관계없이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는 질환이다. “대개 노년층에서 많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중장년층은 물론 8세 어린아이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임신 후반 임신부나 출산 후 몸의 기력이 회복되지 않은 산모에게서도 적잖게 발병한다. 대부분 과로와 피로 누적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 적체 등이 일차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언어장애가 생기거나 표정이 부자연스러워지는 등 얼굴에 증상이 나타나다보니 환자가 받는 마음의 상처는 상당히 크다.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죠. 남 앞에서 밥 먹는 것조차 신경 쓰인다는 환자가 많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병 못잖게 마음의 병이 큰 질환이에요.” 그 때문에 그는 진료 시간 대부분을 환자 이야기를 들어주는 데 할애한다. 그럴 땐 의사와 환자가 아닌, 가까운 이웃이라도 만난 듯 환자의 심리 상태에 귀 기울여주고 예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준다. “눈에 잘 띄는 얼굴에 드러나 예민하게 여겨 그렇지 큰 병은 아니다. 지금이 최악이고 좋아질 일만 남았으니 용기를 갖자고 얘기하면, 조금은 위안을 받는 듯해요. 대부분의 병이 그렇듯 구안와사도 환자가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에 따라 예후가 달라지거든요. 환자가 치료 과정에 믿음을 갖게 하는 게 의사의 큰 역할이죠.”

한의학은 자원이 방대한 학문

그에게 한의사 꿈을 꾸게 한 건 중학생 무렵 읽은 소설 ‘동의보감’이었다. 갖은 고초를 겪으면서도 병자들을 포기하지 않는 지극히 인간적인 허준의 모습을 닮고 싶었다. 어릴 적 달고 살던 비염이 한방치료로 효과를 본 것도 한 이유가 됐다. “한의대에 들어가자마자 ‘의사학(醫史學)’ 강의를 통해 허준이 서술이긴 했어도 대단한 양반가 출신인 덕분에 소설과 달리 신분 한계로 인한 어려움이 그리 크지 않았다는 걸 알고는 허무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귀천을 가리지 않고 마음으로 환자를 대한 심의(心醫)로서의 가르침, 방대한 의서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체계를 잡아 ‘동의보감’을 집필한 것은 한의학도로서 따르고 싶은 대단한 일이죠.” 학창 시절, 서양의학과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는 한의학이 그는 마냥 신기하고 흥미 진진했다. 하지만 근거중심의 현재 의료계에선 그런 시각이 한의학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게 됐다. 그는 한의학은 자원이 풍부한 학문이라고 생각한다. 반면 체계화에는 아직 미흡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한방 치료방법이나 효과에 대해 ‘근거가 있느냐’는 공격도 가슴 아프지만 기꺼이 받아들인다. 치료효과가 더디 나타나는 한방에 양방의 방법론을 적용해 근거를 찾고 입증하는 데는 분명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렇다고



한방만의 특성을 내세워 ‘비과학적’이란 비판에서 비껴날 수는 없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가 임상자료를 꾸준히 수치화하고 체계화하는 데 관심을 쏟는 이유가 여기 있다.

한의학 치료 효과와 안전성 증명에 관심

그는 진료에 못잖은 열정과 노력을 연구 활동에 쏟는다. 가장 관심이 큰 분야는 한의학 치료방법의 효과와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이다. 막연히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대신 실제로 해보니 효과가 있더라고 입증하는 과정에 흥미를 갖는다. 최근엔 한의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한 의료기기 개발과 적용, 암환자·요통환자를 대상으로 한 한의학적 치료 기술에 대한 임상시험, 침치료의 과학화와 객관화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구안와사 환자 중 ‘벼락 맞은 대추나무를 입에 물면 효과가 있다’고 진지하게 묻는 경우도 있어요(웃음). 한의학에 대해 무조건 맹신하는 걸 경계해야 하지만 한의학이 민간요법이나 미신으로 폄하되는 건 더 억울하죠.”

그는 이번 인터뷰에 앞서 ‘애깃거리가 없는 사람’이라며 걱정을 많이 했다. 한창 손이 가야 할 두 아이(8살, 6살)와 충분히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직장맘으로서의 고충도, 꽃이 피고 지는 창밖 풍경에 무심한 채 진료실에 파묻혀 지내는 일상도 ‘할 수 있는 데까진 하지만 그 이상의 것은 쉽게 털어버리는 성격’답게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산다. 점심식사도 거를 정도로 쫓겨 지내다 가끔 창가에서 커피 한 잔 내려 마시는 것이 취미생활의 전부일 정도다.

대신 환자 진료와 ‘한의학이 좀 더 인정받을 수 있는 결과물’을 내놓기 위한 연구에는 욕심을 부린다. 천생 의사이고 학자다.

“실력이 뛰어난 의사는 많아요. 저보다 다른 의사가 진료하는 게 낫겠다 싶으면 환자를 그분들에게 의뢰하는 걸 주저하지 않아요. 전 최고의 의사보다는 한번 인연 맺은 환자에게 따뜻한 사람, 힘이 되는 사람이고 싶어요. 아울러 최선의 방법으로 연구한 작업물을 통해 한의학적 치료가 더 인정받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한의학은 ‘아직 남이 가보지 않은, 접근하지 않은 분야가 많은 학문’이어서 갈 길도 가야 할 길도 많다’는 그의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된다. ●

침구과 김은정 교수

- 경희대 한의과대학 한의학과 졸업
- 경희대 한의과대학 침구과 석사 졸업
- 동국대 대학원 한의학과 침구학 박사 졸업
- 동국대 일신한방병원 전임의
- 동국대 한의과대학 연구초빙교수(이상 역임)
- AMS Awards Young Scientist award 수상(2010)
- 현 동국대 분당한방병원 임상조교수
- 동국대 한의과대학 침구학 조교수

전문진료분야

안면신경마비, 안면경련, 목통증, 무릎통증, 어깨질환, 요통질환, VDT증후군

진료시간

오전 » 월, 수, 목, 금, 토(휴수) 오후 » 월, 수, 금, 토(휴수) 야간 » 월

문의 침구과 외래 031·710·3751

취재 편집위원회

환자중심 시스템 구축으로

성장세 이어가는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한·양방 공동주치의제 서비스로 인간적 치료 실현

환자중심의 한·양방 주치의제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은 지난해 3월부터 한·양방 공동주치의제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 의료계에서 확대되고 있는 한·양방 협진보다 한 발 더 나아간 통합 진료 방식이다. 환자 상태에 따라 협진이 이뤄지는 데 그치지 않고 한방과 양방 의사가 공동주치의로 참여함으로써 중복치료를 피하고 치료효과를 극대화하는 시스템이다. 치료기간이 그만큼 단축됨에 따라 환자의 고통이나 치료비가 줄어드는 효과도 있다.

김장현 병원장은 “질환에 따라 한방과 양방의 통합진료가 더 효과적인 경우가 있다.”며 “환자에게 가장 좋은 치료방법을 찾아주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한·양방 공동주치의제는 환자중심의 인간적 치료법이며 우리 의료계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공동주치의제는 항암치료 후의 부작용, 뇌졸중과 뇌졸중 후유증, 각종 부인과 질환, 소아기 아토피피부염, 결핵, 교통사고 후유증 등에 적용되어 큰 효과를 보고 있으며, 환자의 만족도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병원같지 않은, 내집같은 병원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는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곳곳에서 이루어진다.

김장현 병원장은 2012년 2월 제7대 병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간호사와 재활센터 치료사 인원을 종전보다 2배 가까이 늘렸다. 병원 수익은 적지만 환자 호응이 높은 진료 분야와 센터는 과감하게 확대했다. 병원의 수익구조보다는 환자의 입장을 먼저 생각한 운영 방침이었다. 그 노력의 대가는 곧바로 돌아왔다. 환자들 사이에서 ‘병원같지 않은, 내집같은 병원’이라는 입소문이 나면서 성남과 경기도 지역은 물론 부산과 광주 등지에서도 진료와 입원을 위해 찾아올 정도로 병원 인지도가 높아졌다. 지난해 5월부터는 입원환자에게 약선밥(한의학 기초 이론에 식품학, 조리학, 영양학을 접목해 지은 약이 되는 밥)을 제공하면서 진료 외적인 측면에서의 경쟁력도 강화했다. 또한 지역민에게 직접 다가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협력 의료체계 구축에 큰 몫을 담당하는 등 지역 거점병원으로서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김장현 병원장은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를 통해 지역 인지도 최고인 병원, 믿고 자랑스러워하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피력했다. ●

진료과 한방내과, 한방신경정신과, 사상체질과, 한방부인소아과, 침구과, 한방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문 의 031·710·3700

Introdu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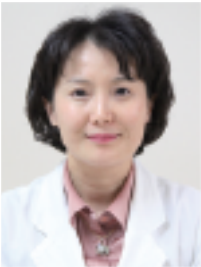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장 김 장 현

1996년 개원한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이 최근 3년간 눈에 띄는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근래 병원 대부분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과는 대조되는 성과다.

김장현 병원장은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에 시스템을 갖춘 덕분”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현대인의
가장 흔한
장질환
과민성 장증후군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소화기내과
임 윤 정 교수

전문진료분야
식도·위·대장질환,
소화기암(식도암, 위암, 대장암),
위장관운동질환

진료시간
오전 » 목, 금
오후 » 월

문의
소화기내과 외래 031·961·7730~1



과민성 장증후군은 소화기내과 외래에서 자주 접하는 흔한 질환이다. 대개 특정 음식을 먹든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자주 하는데 의사는 대장내시경 등 을 시행하고 이상이 없다고 하면서 “과민성 장증후군입니다. 장이 예민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한다.

20대 후반의 여자가 평소 잦은 설사를 걱정하고 복통, 복부팽만을 호소하였다. 복부 불편 감, 복통은 변을 보고 나면 완화된다고 한다. 술을 마신 후, 특히 스트레스를 받으면 설사, 복통의 증상이 다시 심해진다고 했다. 다행히 문진을 해보니 몸무게 감소, 혈변 등의 증상 은 없다고 했다. 해당 환자를 ‘과민성장증후군’으로 진단하고 투약하면서 경과를 관찰했다. 과민성 장증후군이라 하면 배변양상의 변화와 동반된 복통, 복부 불편감을 특징으로 하는 만성 기능성 대장질환이다.

대장내시경을 받아야 할까?
잦은 설사, 변비 등 장 증상과 복부 불편감, 복통이 있으면 대장암, 만성 염증성장질환과 같이 생명과 관계되는 의학적인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를 대장내시경 등을 통해 확인하 는 것이 중요하다. 혹, 우연히 대장내시경에서 발견된 대장 용종이 있다면 용종은 나중에

자라서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리 제거하는 것이 좋으나 과민성 장증후군 증상과 대장 용종은 무관하다. 과민성 장증후군은 대장 내시경에서 정상 소견을 보인다.

과민성 장증후군은 의학적으로 심각한 질환이 아니다.
과민성 장 증후군은 자주 재발하고 감기를 앓는 것처럼 불편할 따름이지만 증상이 심할 때는 삶의 질을 저하시키므로 투약으로 불편한 증상을 조절할 것을 권한다. 그러나, 혈변, 몸무게 감소이 동반되거나, 배변습관이 일정하게 변한 경우 과민성 장 증후군의 증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과민성 장증후군은 왜 생기는 걸까?
과민성 장증후군은 정신적인 요인이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사회 환경에 의해 악화되기도 한다. 여러 역학연구를 살펴보면 남자보다는 여자가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민성 장 증후군은 소장과 대장의 운동이 비정상적이거나 감각 기능이 지나치게 예민해서 일 어난다. 증상은 스트레스·심리적 상태 등에 영향을 받게 된다. 환자의 스트레스 등 정신사회 적인 요인과 뇌, 장관 상호 작용이 과민성 장 증후군의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소 량의 항우울제가 도움이 되기도 한다. 간혹, 정신건강의학과와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다. 특정한 음식을 먹으면 증상이 심해진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음식의 유발성분을 조사 해서 음식에서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표적인 장관자극 인자로는 알코올을 비롯해 유당, 소르비톨과 같이 흡수되지 않는 당류, 담즙산 등을 들 수 있다.

유산균제가 도움이 될까?
대장 내에는 정상적으로 살아있는 많은 세균이 산다. 우리 몸에 좋은 생균은 흔히 말하는 유산 균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세균 감염 등 여러 원인에 의해 장내 세균총의 불균형이 오면 장의 운동의 이상으로 인해 변비 또는 설사가 오고 내장 감각의 예민화로 인해 복통이 올 수 있어 과민성 장증후군에서 유산균제를 복용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많은 학자들은 생각해 왔다. 유산균제는 먹으면 위를 통과하면서 위산에 견뎌야 하고 소장을 통과하면서 담즙산 등에도 죽지 않고 대장에 안전하게 도달하는 게 중요해 음료보다는 검증된 제품이 효과적이다. Bifidobacterium종, Lactobacillus종, Streptococcus thermophiles, Pediococcus pentosaceus, Saccharomyces boulardii 등이 시중에 시판되고 있다.

장에 좋은 음식
장에 염증이 심할 때(예를 들면 세균성 장염, 게실염, 궤양성대장염, 크론병 등) 또는 대장용종 제거술 직후는 대변을 많이 만들어 내는 식사는 좋지 않다. 이때는 가급적 죽이나 유동식, 저 섬유식사를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건강한 장에는 고섬유질 식사가 좋고 특히, 변비에 도움이 된다. 충분하고 다양한 야채섭취와 호두, 잣 등 견과류, 현미 등이 대표적인 고섬유음식이다. ●

과민성 장증후군은
변비, 설사가 교대로 나타나고
복부 불편감 또는 복통을
동반한다.



동국대학교의료원과
함께하는
건강 노하우

비만은 병입니다



동국대학교경주한의원
한방재활의학과

송 미 영 교수

전문진료분야
척추 디스크, 골관절염, 교통사고후유증,
추나요법(척추, 골반교정), 비만

진료시간
오전 » 월, 화, 수, 목, 금, 토(1,3,5주 진료)
오후 » 월, 목
문의
한방재활의학과 외래 054 · 770 · 1264

비만의 유병률은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2년 국민건강 영양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인구 3명중 1명이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으로 인해 2형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등의 대사증후군과 더 나아가 생명을 위협하는 뇌 · 심혈관 질환으로 연결된다는 것은 건강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이라면 잘 알고 계실 것 같다. 비만은 그 자체로 질병이며, 더 큰 질병을 일으키기 전에 반드시 치료되어야 한다.

비만은 에너지 불균형으로 인한 체지방의 과잉 축적된 상태이다. 즉, 소모되는 에너지에 비해서 섭취하는 에너지가 많아서, 잉여 에너지가 지방형태로 축적되는 것이다. 따라서 비만의 치료법은 언뜻 보면 간단하다.
에너지 섭취를 줄이고(적게 먹고), 에너지 소비를 늘리는(활동량을 늘리거나, 대사를 높이는 것)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식욕억제를 사용하여 식이 제한(적게 먹어서 섭취 칼로리를 줄이는)만을 통한 치료는 초기에는 효과가 있지만, 인체의 항상성 조절 기전으로 인해 적게 먹는 만큼, 대사를 떨어뜨려 에너지 소비를 줄여나가므로,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둔화되고, 쉽게 요요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큰 문제점이 있다. 또한 활동량(운동량)을 늘려서 에너지 소비를 늘리는 것은 생각만큼 운동을 통한 칼로리 소비량이 많지 않으며, 바쁜 현대인의 생활에서 운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따라서 효과적이고 지속가능 한 비만 치료의 전략은 식이조절, 운동요법의 기본적인 방법과 더불어 대사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한방 비만 치료에서는 불균형한 오장육부 기능 및 기혈의 조절을 통해 대사를 상승시키는 것을 중요시 한다. 신진대사를 저하시켜 비만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을 스트레스로 기운이 막힌 간울(肝鬱)형, 과식 및 폭식으로 인한 식적(食積)형, 병리적 체액이 쌓인 담음(痰飲)형, 병리적 혈액으로 인한 어혈(瘀血)형, 인체의 양기가 부족한 양허(陽虛)형 및 소화기관이 약하여 순환이 되지 않는 비허(脾虛)형으로 분류하여 치료한다. 이러한 변증 구분을 통해 처방된 개인별 맞춤 한약으로 체지방 분해, 식욕조절뿐만 아니라 대사율 상승과 만성피로, 무기력 등 신체 증상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체중만이 아닌 체지방을 많이 감소시키고, 근육 손실은 최소화하여 근육, 지방의 불균형 바로잡고, 만성 피로 등 제반 증상을 개선하여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건강한 다이어트가 치료의 최종 목표이다.

실제로 아래 치료 사례와 같이 한약 치료와 더불어 식이요법이 잘 병행되었을 때, 청년층뿐만 아니라 다이어트가 어려운 중장년층에서도 우수한 치료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한방비만클리닉에서는 복부, 허벅지 등의 국소 지방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산삼비만약침 (주1~2회, 15분 소요) 등의 다양한 부분 비만 치료도 함께 하고 있다.

비만은 치료해야 할 질환이며, 특히 노화와 호르몬 변화 등으로 인해 비만과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중장년층에서 비만 전문의를 통한 적극적인 치료가 더욱 중요하다. ●

골격근 - 지방		표 준 이 하		표 준			
Muscle- Fat Analysis							
체 중 (kg)		55	70	85	100	115	130 145
Weight							
골격근량 (kg)		70	80	90	100	110	120 130
Skeletal Muscle Mass							
체지방량 (kg)		40	60	80	100	120	160 220 280
Body Fat Mass							

골격근 - 지방		표 준 이 하		표 준			
Muscle- Fat Analysis							
체 중 (kg)		55	70	85	100	115	130 145
Weight							
골격근량 (kg)		70	80	90	100	110	120 130
Skeletal Muscle Mass							
체지방량 (kg)		40	60	80	100	120	160 220 280
Body Fat Mass							

61세 여성, 치료 전후 비교(5개월 뒤) ▶ 골격근 0.8kg 증가, 체지방 9.1kg 감소
체중, 골격근, 지방을 연결한 선(파란색)이 근육부족형(C 모양)에서 표준형(일직선)으로 변화

골격근 - 지방		표 준 이 하		표 준			
Muscle- Fat Analysis							
체 중 (kg)		55	70	85	100	115	130 145
Weight							
골격근량 (kg)		70	80	90	100	110	120 130
Skeletal Muscle Mass							
체지방량 (kg)		40	60	80	100	120	160 220 280
Body Fat Mass							

골격근 - 지방		표 준 이 하		표 준			
Muscle- Fat Analysis							
체 중 (kg)		55	70	85	100	115	130 145
Weight							
골격근량 (kg)		70	80	90	100	110	120 130
Skeletal Muscle Mass							
체지방량 (kg)		40	60	80	100	120	160 220 280
Body Fat Mass							

25세 여성, 치료 전후 비교 (3개월 뒤) ▶ 골격근 0.5kg 증가, 체지방 8.6kg 감소
체중, 골격근, 지방을 연결한 선(파란색)이 근육부족형(C 모양)에서 강인형(D 모양)으로 변화

비만은 에너지 불균형으로 인한 체지방의 과잉 축적된 상태이다. 즉, 소모되는 에너지에 비해서 섭취하는 에너지가 많아서, 잉여 에너지가 지방형태로 축적되는 것이다.



감출수록 드러나는 자리에서다

해인사 홍류동천(紅流洞天) 십리길을 천천히 걸었다. 감추기도 하고 드러내기도 하면서 길은 이어졌다. 그 옛날 소달구지가 다니던 시절에는 감추어진 길이였다. 하지만 신작로가 되면서 ‘드러난’ 길로 바뀌었다. 차를 이용할 때마다 스쳐가기에는 너무 가까운 길이란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다. 걷기 열풍이 일면서 찾길 건너편으로 걷는 길이 새로 생겼다. 올레길이니 둘레길이니 하면서 지역마다 여러 가지 이름으로 걷는 길이 유행처럼 만들어질 무렵 ‘홍류동길’도 ‘소리길’이 된 것이다. 눈이 맑았던 시절에는 봄 진달래 가을 단풍을 감상하며 ‘홍류(紅流)’라는 이름을 붙였다. 소리길은 눈은 물론 귀까지 호사롭기를 원했다. 그래서 물소리 바람 소리가 함께하는 길이라는 의미까지 살렸다.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지면서 눈과 귀를 동시에 만족하게 하는 아름다운 이름의 명품길이 다시 탄생한 것이다.

아웃도어 시장의 세계적 강국(?)답게 형형색색의 등산복은 홍류동길과 조화를 이루었고, 아줌마들의 수다와 선남선녀의 속삭임 그리고 어린이들의 재잘거림은 소리길과 잘 어울렸다. 당장 출발해도 히말라야를 오를 수 있을 것 같은 복장으로 중무장한 채 입술을 일자로 꼭 다물고, 소리마저 거부하는 중년 남성의 침묵을 뒤따라 걷다 보니 어느새 중간 지점인 농산정(籠山亭)에 이르렀다. 신라 말기에 은둔이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감춰지길 희망했던 고운(孤雲) 최치원(857~?) 선생이 칩거한 곳이다.

주역에는 ‘천지의 기운이 막히면 현인들은 숨는다(天地閉 賢人隱)’고 했다. 속마음은 세상이 꼴 보기 싫어 숨지만 밖으로는 천지의 기운이 막힌 까닭에 은거할 수밖에 없다는 명분을 제공해 주었다. 그런 의미로도 고전은 참으로 좋은 책이다. 뒷날 은둔을 소극적인 ‘이은(吏隱)’과 적극적인 ‘야은(野隱)’으로 나누는 이론까지 등장했다. 그는 육두품 출신이란 신분적 한계를 절감한 나머지 처음에는 이은을 선택했다. 중앙의 화려한 벼슬자리를 마다하고 변방의 미관말직을 전전했다. 갈수록 기울어지는 국운은 급기야 하늘과 땅의 기운마저 멈추게 했다. 결국 초야에 묻혀 사는 야은을 선택함으로써 스스로 자기 구원의 길을 찾아간 것이다.



원철(圓徹) 스님

해인사로 출가
월간 〈해인〉편집장
조계종 불학연구소장을 역임
現, 해인사승가대학장
자서로 〈집으로 가는 길은 어디서라도 멀지 않다〉,
〈아름다운 인생은 얼굴에 남는다〉 등과
번역서로 〈선림승보전〉이 있다.

하지만 어디든지 숨구멍은 있기 마련이다. 해인사에 머물고 있는 형인 현준(賢俊) 대사가 든든한 의지처였다. 여러 은둔처를 찾다가 마침내 이 자리로 낙점한 것은 형의 영향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형의 도반(道伴)이었던 정현(定玄) 스님과도 도담(道談)을 나눌 만한 허물없는 사이가 되었다. 이후에도 이곳을 찾는 은둔객은 셀 수 없이 많았다. 바위에는 애써 흔적을 드러내고자 하는 털 떨어진 이들의 이름 석 자가 곳곳에 새겨졌다. 농산정 인근 맞은편 언덕에는 지금도 ‘짧은 은둔’을 꿈꾸는 사람들을 위해 몇 채의 기와집이 ‘민박’ 간판을 달고 있다. ‘정감록’은 이 지역을 피신하기 좋은 십승지(十勝地)에 포함했다. 세계문화유산이 된 팔만대장경이 600여 년 전 해인사로 옮겨진 것도 결국 자연재해가 미치지 않는 명당인 까닭이다.

농산정 자리는 고운 선생이 참으로 감추고 싶은 터였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십리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드러난 공간이 되었다. 풍광이 홍류동천의 백미인 까닭에 신작로와 소리길이 구름다리로 이어지면서 교차로가 된 까닭이다. 게다가 ‘불운한 스타’의 은둔 스토리가 있고, 사모하는 후학들의 마음을 담은 정자가 세워졌으며, 이끼로 덮이고 빗마저 바랜 천연 문학비가 함께 곁을 지키고 있다. 세월이 흐르다 보니 본의 아니게 현대 가수 사이의 B급 표현을 빌리자면 ‘가렸지만 웬만한 노출보다 더’ 심한 경우가 되어버린 것이다. 감출수록 드러나는 은둔 아이러니의 대표적 현장으로 보존된 셈이다.

농산정 앞에서 “세상 다투는 소리 귀에 닿을까 두려워 흐르는 물로 만 겹의 산을 쌓았네”라고 읊었던 은둔 시인을 향해 일제강점기 예운(猷雲) 이동식 거사는 “이미 흐르는 물로써 세상의 때를 씻었으니 만 겹 산으로 다시 귀 막을 필요는 없다”고 혼수하면서 재야고수로서 면모를 과시했다. 이동식 거사는 농산정뿐만 아니라 홍류동천을 중심으로 가야산 19명소에 대한 연작시를 남겼다. 오래전 필자는 습작 삼아 열아홉 편의 한시를 한글로 번역했다. 소리길이 생기면서 모퉁이마다 그 시가 한글 안내판 구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앞에서 한 자 한 자 소리 내 읽으면서 “좋다!” 하고 맞장구를 쳐주는 누군가를 만날 때면 역자로서 흐뭇한 표정을 숨길 수가 없었다.

감춘 것은 당사자의 의지이지만 알려지는 건 제삼자의 뜻이다. 숨은 것을 들추고자 하는 것이 굳이 누구의 허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황(李滉 · 1501~1570) 선생은 안동 골짜기 계곡으로 숨으면서 ‘퇴계(退溪)’라고 이름했고, 성철(性徹 · 1912~1993) 선사는 가야산 백련암으로 몸을 옮기면서 ‘퇴옹(退翁)’으로 자칭했다. 신비주의를 의도한 은둔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신비주의적 은둔이 되었다. 은둔이 역설적으로 세세생생 당신들을 드러나게 한 것이다. 이 역시 은둔이 가진 또 다른 반전 아니겠는가? ●

사찰기행

벽화와 목어가 아름다운 절 보광사

조선 숙종의 많은 후궁 가운데
숙빈 최씨가 있다.
궐내 허드렛일을 담당하는
무수리 출신에서 후궁을 거쳐
아들이 왕위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
바로 숙빈 최씨로 그녀를 주인공으로
텔레비전 연속극으로 만든 것이
〈동이〉라는 드라마다.
무수리에서 왕의 후궁까지 오르는
과정도 드라마틱하지만
아들이 왕이 되고 자기를 낳아준
친모를 모시는 이야기도
애뜻한 한편의 드라마 같다.
그 애뜻한 드라마의 배경이 되는
사찰이 파주 보광사다.

항 찬 익
동국대학교 국문학과 졸업,
산과 절 전문 스토리텔러로
〈기도도량을 찾아서〉,
〈이야기가 있는 산행〉,
〈서울의 전통사찰〉 등을 집필했다.



글+사진 황찬익



소령원(昭寧園)의 능침사찰

영조가 아직 왕위에 오르기 전, 연잉군(延昞君)이었을 때 이야기다.
어려서 무예를 좋아하고 사냥을 즐겼던 연잉군이 지금의 파주 용
미리 근처를 지날 때다. 누군가 죽어 장례를 치르려는지 사람 몇이
모여 땅을 파고 있었다. 그런데 묘를 쓸 자리가 험준한 산꼭대기에
다 바윗돌도 많아 쉽게 산소를 만들지 못하고 있었다.
이를 보던 연잉군이 딱하게 여겨 상주인 듯한 사람에게 물었다.
“왜 이렇게 안 좋은 곳에다가 묘를 쓰려고 하시오.” 상주는 한숨만
푹 내쉬면서 말했다. “제가 가진 것이 원체 없어서 좋은 자리를 살
돈이 없습니다.” 연잉군이 다시 물었다. “그래도 이 자리라도 봐준
지관이 있을텐데 누가 봐준 겁니까?” 상주가 대답했다. “요기 산
아래 사는 선비올시다요.”
연잉군은 산을 내려오면서 양주목사에게 편지를 보내 상주에게 살
한 가마니와 돈 백 냥을 보내주라고 이르고, 그 선비를 찾아가 따
지듯이 물었다. “아니, 아무리 시골 지관이라도 그런 나쁜 땅을
못자리로 정해주다니 당신이 지관이 맞긴 한거요?” 지관이 태연
스럽게 말했다. “나쁜 땅이라니요? 그 자리가 바로 파기만 해도 쓸
한가마니, 돈 백 냥이 나올 자리인데 왜 나쁘다고 하십니까?”
연잉군은 무릎을 치면서 감탄하고 이 시골선비가 보통사람이 아
님을 알아보게 된다. 그뒤 자신의 생모 숙빈 최씨가 죽자 바로 이
선비를 찾아가 못자리를 부탁하니 정해진 자리가 지금의 광탄면
소령원이요 소령원의 능침사찰로 백중날 숙빈 최씨의 천도재를
올리던 절이 고령산 보광사다.

보광사에서 꼭 봐야 할 세 가지!

고양시 고양동에서 광탄으로 가다가 길이 두 갈래로 나뉘는 곳에
서 오른쪽 옛 벽제공동묘지 쪽으로 향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뒷박고개라는 험한 고갯길이 나온다. 벽초 홍명희의 소설 〈임거정〉
에서 걱정이 패가 넘나들던 고개다. 이 뒷박고개를 바로 넘어 오른
편 고령산으로 오르면 특이하게도 고령산을 등지고 북향으로
자리잡은 고찰이 바로 보광사다.
보광사는 894년 신라 진성여왕 때 도선국사가 창건했다. 창건 당
시에는 국가적인 비보사찰로 한수 이북의 6대 사찰 중 하나였다.
임진왜란 때 폐허가 된 것을 1622년과 1667년에 각각 중수했으며,
1740년에는 숙빈 최씨의 묘 소령원의 능침사찰이 되어 대웅보전,
관음전 그리고 만세루 등을 중건했다고 한다.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83호 대웅전과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58호
동종,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248호 목조보살입상 등이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보광사는 이들 지정문화재 외에도 많은 볼거리가 있
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대웅전 앞 만세루 처마에 매달려 있는
목어다. 다른 절에는 목어가 범종각에 매달려 있는데 이곳에는
특이하게도 만세루 처마 밑에 걸려 있다. 모양도 잘생겼지만 실제
만들어진 지도 100년이 넘는 유서 깊은 목어다.
두 번째로 봐야 할 것은 대웅전 옆면과 뒷면 그리고 내부 천정에
그려진 꽃비 내리는 화장세계 그림과 반야웅선, 호랑이, 사자와
코끼리를 탄 문수와 보현동자상, 주악비천도 등의 불화다. 영조가
자신의 어머니 능침사찰로 중수하면서 그려 모신 것으로 18세기
초반 사찰 장엄의 극치를 보여준다.
대웅전 내부로 들어가면 왼편 벽에 걸린 감로탱도 특색 있는 그림
이다. 당대의 시대상을 엿볼 수 있는 수작으로, 불기맞는 죄인이나
참외를 깎아먹는 장날 풍경 등이 당시의 풍속을 있는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 수미단 오른편의 커다란 쇠북에는 왕과 왕비 그리고
세자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명문이 새겨져 있기도 하다.
세 번째는 대웅전 오른편에 있는 어실각과 그 옆 300년이 넘는
향나무다. 한 칸짜리 작은 목조전각에 어실각이라는 편액을 달고
있는데 그 옆으로 영조가 직접 심었다는 향나무가 어우러져 보광
사의 사격을 말해주고 있다. 영조는 해마다 소령원에 들러 제사를
직접 지냈다고 하는데 보광사 중수 후에는 대웅전의 편액도 친필
로 내렸다고 한다.
이밖에도 절뒤로 난 오솔길을 따라 30여 분 오르면 산내암자인
도솔암이 나온다. 고령산 거의 정상부에 위치한 도솔암에 오르면
경기북부의 높고 낮은 구릉지대가 내려다보이고 발치에 놓인
고즈넉한 보광사의 정경을 한눈에 감상해볼 수 있다.

주변에 둘러볼 만한 곳들

보광사에서 10분 거리에 영조의 어머니 숙빈 최씨의 소령원과
영조의 후궁 정빈 이씨의 수길원이 있으나 공개되지 않는 곳이다.
여기서 광탄읍을 지나 용미리 방향으로 가다보면 윤관 장군의
묘와 파주 쌍미륵으로 더 많이 알려진 용미리 석불입상이 있다.
고령산 너머에는 기산유원지, 장흥유원지 등 위락단지가 나란히
자리해 있어 식당과 찻집이 즐비하다. ●

- 1. 대웅전 앞 만세루 처마에 매달려 있는 목어
- 2. 대웅전 연화화생 판벽화
- 3.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83호 보광사 대웅전

藥이 되는 사찰음식 이야기

〈약〉

자연의 먹을거리로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음식으로 이루어진 사찰음식은 소박하지만 건강을 위한 최고의 밥상으로 일반인들에게도 관심이 높다. 사찰음식은 제철음식을 골고루 먹기만 해도 건강해질 수 있고, 병도 고치고 자연도 지킬 수 있음을 일러준다.

경전 사분율(四分律)에 보면 ‘음식은 약(藥)이다’라고 했다. 환자가 먹는 음식도 약이고, 일반사람이 먹는 음식도 다 약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다. 이는 병이 나서 치료를 필요로 하기 전에 병이 걸리지 않게 하는 예방의학으로, 또 몸에 병균이 들어온 후가 아닌 병균이 우리 몸에 침범 못하도록 하는 방어의학으로써 모든 음식문화를 약과 의학적 관점에서 고려하였음을 의미한다. 음식을 만드는 주방 또한 항상 깨끗하게 관리해야 하며 남쪽 또는 서쪽에 설치하여 바람이 잘 들어오는 길에 만들어 통풍이 잘되게 해야 한다고 설비와 청소까지도 여러 가지 규정을 두어 지키도록 했다. 그래서 음식 속에는 우주의 모든 생명이 함께 있고, 그 생명들은 나와 둘이 아니고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먹는 음식 속에는 생명 존중을 담아야 하고, 또 그런 음식은 곧 나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음식은 우주의 생명과 나를 만들어주는 원천임을 생각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그런 불교의 음식은 계절식을 지켜야 하고, 리듬에 맞춰 음식을 먹어야 하고 또 그 음식을 먹을 때 감사한 마음으로 오래 씹어 먹어야 하고, 음식이 내게 온 의미를 음미하면서 내 몸에서 좋은 에너지를 만들고, 감사한 마음으로 먹음으로써 건강을 도와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절집의 김치는 일반가정에서 사용하는 젓갈류를 넣지 않고 대신에 발효된 장(醬)과 천연의 조미료를 사용하여 자극적이지 않은 담백한 맛이 특징인데 여러 곡물죽이나 견과류를 넣어 부족한 영양의 균형을 맞춘다. 여름에는 면역물질이 많은 상추대궁을 이용한 상추대궁김치, 연근에 배를 갈아 넣고 만든 연근배즙물김치, 가지소박이, 풋고추열무김치, 감자 열加里배추김치, 대나무오이지, 자소양배추김치, 옥수수열무김치, 메밀죽박김치 등 다양한 재료로 김치를 해먹으면서 더위에 지쳐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아프고, 소화불량으로 기운이 없는 것을 이겨낸다. 자연의 맛으로 몸의 에너지 흐름을 건강하게 되찾는 것이다.

현대인의 질병은 건강과 역행하는 식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많은 의학전문가들 역시 어떤 음식을 섭취하느냐에 따라 환자의 건강이 결정된다는 이야기를 자주 한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변화에 순응하여 음식을 조절하면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고, 이것을 게을리 하거나 필요한 음식이 결핍되면 곧 병이 생기고, 조화롭지 않은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병의 원인을 스스로 만드는 것이 된다.

사찰음식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지 않고, 자연이 준 그대로를 감사히 여기며 음식을 만들고, 재료가 가지고 있는 특성대로 섭취한다. 맑고 건강한 몸은 맑고 건강한 음식으로 구현된다. 재료 본연의 맛을 잊고 사는 요즘의 현대화된 음식문화 속에서 건강한 사찰음식을 통해 건강과 행복을 가꾸시기 바란다. ●



선재(善財) 스님
한국전통사찰음식보존회 초대회장 역임,
現 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원장,
동국대 대학원 사찰음식 강의담당교수
전국비구니회관, 봉은사, 봉녕사 등에서 사찰음식을 가르치며 건강한 음식문화를 알리는데 힘쓰고 있다.
저서로는 〈약이 되는 선재 스님의 사찰음식〉,
〈선재 스님의 이야기로 버무린 사찰음식〉이 있다.

RECIPE



연근배즙물김치

- 재 료
연근1개, 배1/2개, 미나리한줌, 대추5개, 고춧가루3T, 물5컵, 소금2 1/2T
- 만드는 방법
① 연근은 껍질을 벗겨 모양을 살려 썰어 소금을 살짝 뿌려 버무리고 미나리는 줄기부분만 2cm로 썰고 대추는 돌려 깎아 채썬다.
② 배를 강판에 갈아 고춧가루물을 들어서 체에 짤다.
③ 배즙에 생수를 붓고 소금을 넣어 간을 맞춘다.
④ 연근, 미나리, 대추에 국물을 붓는다.



상추대궁김치

- 재 료
풍상추400g, 고춧가루2큰술, 밀가루1큰술, 물1컵, 소금1t, 간장1T, 배즙4T
- 만드는 방법
① 상추는 깨끗이 씻어 물기를 뺀다
② 밀가루 물을 섞고 식혀서 고춧가루 간장 소금 배즙을 넣고 양념한다
③ 양념에 상추를 적셔 담는다



우황청심원(牛黃清心元) 제대로 알고 먹자

중풍 심장병 등에 구급치료제로 많이 알려진 우황청심원은 어느덧 어지럼증과 두통, 정신적 긴장감 해소에도 많이 찾는 약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몸의 컨디션이 떨어질 때도 자주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청심원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므로 항상 좋은 것이 아니며 체질에 맞지 않을 경우 해가 될 수 있으므로 잘 알고 먹어야 합니다.

우황청심원의 구성 약재는?

약 30가지의 한약재로 구성되어 있고 주성분은 우황입니다. 우황은 담석이 있는 소의 쓸개에서 구한 내용물입니다. 심장의 열을 내리는(淸心) 효과가 좋고 기와 혈을 소통시키고 담을 없애주며 해독 작용도 있습니다. 이외에 대표적인 약재로 사향과 서각, 영양각, 주사, 용뇌 등의 약재가 들어갑니다. 최근에는 국제적인 협약으로 서각과 영양각 등은 주성분이 대용된 약재로 많이 쓰입니다. 서각과 대두황련(그늘에서 말린 콩나물)은 심장과 위장의 열을 풀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나머지 구성 약재 대부분도 기와 혈의 흐름을 원활히 해주는 약재입니다.

우황청심원의 주요 임상 효능은?

임상적으로 가장 많이 응용하는 부분이 중풍입니다. 뇌혈류의 순환장애를 도와주는 효과가 실험적으로 유효함이 입증되었고 임상에서 많이 쓰이며 가정에서도 구급상비약으로 사용합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중풍증의 경우 의식장애와 연하

장애가 있는 경우 우황청심원을 억지로 먹게 하는 것은 기도를 막히게 하거나 흡입성 폐렴을 유발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심장에 열이 많은 고혈압이나 어린아이의 경기에도 사용합니다. 중풍증이나 심혈관 질환이 아니라도 가슴이 답답하고 막힌 증상에 사용할 수 있는데 두통과 소화 장애에도 적은 양을 응용할 수 있겠고 진정효과도 있습니다. 간혹 상열되어 오는 코피증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최근에 스트레스로 인한 화병이 많은데 효과가 있습니까?

심장의 열을 내려주는 효과 측면에서 볼 때 열이 쌓여서 오는 화병에는 임상적인 큰 효과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매일 누적될 경우 화병의 원인이 되는데 예방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우황청심원이 맞지 않는 경우는?

우황청심원은 심장에 열이 쌓여서 오는 기혈의 막힘증에 효과가 있는 반면에 몸이 너무 차거나 심하게 탈기 되어 있는 경우는 맞지 않습니다. 잘 먹지도 못하고 심신이 지쳐서 의욕이 상실된 경우와 심한 우울증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우황청심원이 보약이 될 수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우황청심원 말고 소합향원이라는 처방을 대신합니다.

우황청심원은 우리나라 것이 좋은가요?

흔히들 하는 질문인데 우리나라 것이 절대적으로 좋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원방의 구성 약재를 얼마나 충실하게 만들었느냐가 중요합니다. 동의보감에 나오는 대로 30가지의 약재를 넣지 않고 5~6가지 정도만 구성한 변방청심원은 그 만큼 효과가 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역사적으로 한국산 우황은 질이 좋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선 후기 학자인 연암 박지원 선생께서 중국에 사신으로 갈 때 청심원을 준비해서 갔는데 주위 사람들이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했다는 기록이 열하일기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약과 음식은 '신토불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황청심원은 허준 선생님의 처방으로 우리 것이 제일 좋겠지요.

요즘은 우황청심원의 주 약재인 사향노루와 물소뿔 등을 구하기 힘들다던데?

우리나라도 국제야생동물보호협약에 가입되어 사향과 물소, 영양 등을 포획하거나 수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요즘은 중요 약재의 지표성분이 공통된 대용약재를 사용합니다. ●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한방내과

임 성 우 교수

전문진료분야 소화기질환(식도/간담도/위장/소장/대장), 소화흡수장애, 대장항문질환, 복통, 설사, 변비
진료시간 오전 » 화, 목, 토(격주 진료) 오후 » 월, 화, 목, 금
문의 한방내과 외래 » 031 · 961 · 903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건강을 지키는 야외활동 응급처치

해수욕장에서 해파리에 쏘였을 때 대처방법을 알려주세요.

해파리에 쏘인 환자는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이 늘어나는 8월경에 최대로 발생합니다. 해파리에 쏘이게 되면 쏘인 부위의 통증, 발적, 두드러기 등의 경한 증상인 경우에는 수일에서 2주 정도 사이에 자연 치유됩니다. 가끔 염증 후에 발생하는 피부색소침착이 생기기도 합니다. 호흡곤란, 저혈압 등의 전신 증상을 보이는 경우나 과민반응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응급처치시에는 최대한 빨리 물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달라붙은 가시세포를 제거하기 위해서 쏘인 부위를 소독합니다. 이때는 수돗물이나 바닷물 대신에 식초를 사용합니다. 이후 눈에 보이는 촉수가 있다면 이차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장갑, 나무젓가락, 수건 등을 이용해서 제거합니다. 가벼운 증독에는 증상완화치료만으로 충분하며 국소마취제나 진통제를 사용하며 예방적 항생제는 필요하지 않지만 파상풍 예방과 세심한 상처치료가 필요합니다. ●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장시간 활동하다보니 열사병이 의심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열사병은 갑자기 나타나며 대개 의식변화가 나타납니다. 의식변화가 나타나기 전 무력감, 어지러움, 구역, 구토, 두통, 졸림 등의 전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피부는 뜨겁고 건조하며 땀이 나지 않는 특징도 있습니다. 열사병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더운 환경에서 피하게 하고 환자의 체온은 낮추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응급처치입니다. 환자의 의식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無理하게 물이나 음료수를 입으로 먹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즉시 119에 신고하여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하여 추후 치료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고온에 장기간 노출되는 상황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더운 환경에서 작업을 하거나 운동하는 경우에는 자주 그늘이나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충분히 수분 섭취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

산이나 계곡에서 뱀에 물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독사에게 물린 상처는 일반적으로 피부를 관통하거나 긁히는 등 하나 이상의 물린 흔적이 있게 되고 물린 후 30~60분 후면 통증, 부종, 반상출혈 등의 국소 증상이 나타납니다. 어지러움, 오심, 구토, 시야혼탁, 발열 등의 전신적인 증상 시 주의를 요합니다. 먼저 뱀에게 물리면 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추가적인 손상을 입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린 부위는 심장 높이보다 아래에 위치하게 하고, 반지, 시계, 끈 끼이는 옷 등은 풀어주며 함부로 술, 음식, 약물 등을 투여해서는 안 됩니다. 예전부터 시행해 온 지혈대나 절개 후 흡인 등의 방법은 더 이상 권장되지 않습니다. 전신적인 뱀독 증독 증상 시에는 항독혈청을 투여해야 하므로 항독혈청 투여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이송이 필요합니다. ●

벌에 쏘였을때 응급처치는 어떻게 하나요?

벌에 쏘인 경우 쏘인 부위의 국소적 통증과 부풀어 오르는 증상이 있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즉각적인 과민 반응인 아나필락시스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벌에 쏘인 뒤 수 분 이내에 저혈압, 호흡곤란, 기도폐쇄 등의 증상으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벌에 쏘인 경우 쏘인 부위에 벌침이 보이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와 같이 끝이 단단하고 평평한 물건으로 긁어내듯이 밀어내어 벌침을 뽑아냅니다. 이후 얼음찜질을 하거나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면 증상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흉부압박감, 호흡곤란, 발한 등의 전신증상을 보일 때에는 과민반응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즉시 119신고 후 응급의료센터로 이송해야 합니다. 야외 활동 시 벌쏘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밝은 색깔의 화장을 하거나 옷 입는 것을 피하고 자극적인 향수를 사용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

파상풍균은 어떻게 감염되나요?

파상풍을 일으키는 균은 전 세계적으로 흙에서 발견되지만 동물이나 사람의 대변에서도 발견됩니다. 토양이나 분변을 통해 오염된 피부나 점막의 상처로 파상풍균이 들어가서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녹슨 못에 찔리거나 동물에 물려도 감염될 수 있고, 넘어져서 상처가 났거나 피어싱, 문신, 곤충에 쏘였을 때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잠복기는 대부분 4~14일 정도이며, 감염 후 1주일 이내에 발생할수록 더 중증의 경과를 보이게 됩니다. 초기에는 상처 주위에 국한된 근육 수축이 나타나며 증상이 진행되면서 목과 턱 근육이 수축되고 입을 열지 못하거나 삼키지 못하는 마비증상이 나타납니다. 치료는 파상풍 면역 글로불린이나 항독소를 정맥 주사하여 독소를 중화합니다. 사망률은 6~60% 정도로 다양하며, 유아나 고령자의 경우 치료 결과가 좋지 않으므로 예방이 중요합니다. ●

DUMC NEWS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10th

10년의 열정
100년의 희망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개원 10주년

‘10년의 열정, 100년의 희망’ 개원 10주년 기념 엠블럼&슬로건 발표

동국대학교일산병원 · 일산한방병원은 개원 10주년을 기념하는 엠블럼과 슬로건을 발표했다. ‘10년의 열정, 100년의 희망’이란 슬로건은 지난 10년 동안 성장해 온 열정과 새로운 100년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다시 한 번 도약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엠블럼은 원을 모티브로 하여 10주년을 의미하는 10을 조합하여 시각화했다. 원의 겹쳐진 모양은 균형과 조화를 나타냄과 동시에 과거와 미래를 아우르는 메시지를 담아 역동적이고 진취적인 미래지향적 비전을 나타냈다. 이번에 발표한 엠블럼과 슬로건은 앞으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각종 인쇄물과 홍보물 등에 활용하여 내 · 외부 고객과 공유할 예정이며, 동국대학교병원은 고객 만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고객과 함께하는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혈액투석적정성 평가에서 96.4점으로 ‘경기 서북부 지역에서 유일하게 4회 연속 1등급 획득’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인공신장실은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4월 9일 발표한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 의료기관에 선정되어 4회 연속 1등급을 유지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2009년부터 실시한 혈액투석적정성 평가에서 4회 연속 1등급을 유지한 병원은 경기 서북부 지역에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이 유일하며, 전국 종합병원 평균 89.6점, 동일 지역 평균 87.0점보다 크게 높은 96.4점으로 1등급을 유지하여 인공신장실이 혈액투석환자에게 최고 병원을 입증했다. 한편, 지난 3월에는 엄격한 심사기준으로 투석 치료의 전문성을 검증하는 대한신장학회 인공신장실 인증도 2회 연속 획득하는 데 성공한 바 있다.

최첨단장비와 시설을 갖춘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본격 가동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갔다.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는 보건복지부 지원금과 자체예산 등 약 10억여 원을 투자하여 위생과 안전에 중점을 두고 개보수를 마쳤다. 단독전원(IPS)과 무정전시스템(UPS), 자가발전시스템까지 환아를 안정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과 친환경페인트, 방염, 신생아를 위한 자연채광과 개별 조명시스템 등이 구축됐다. 또한, 환아들을 보다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간호사를 증원하고, 격리실 병상을 증설했다. 특히, 환아 치료에 꼭 필요한 최신장비를 대폭 보강했다. 저산소증으로 인한 이차적 뇌손상의 진행을 감소시키는 ‘선택적 뇌 저온 치료기’, 미숙아의 호흡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고빈도 진동 인공 호흡기’ 등의 장비는 미숙아 치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산모 고령화 등으로 미숙아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는 고위험 신생아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앞으로 지역거점센터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미숙아 치료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지난해 4월 ‘2014년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로 선정된 바 있고, 출생체중이 750g 미만에서 약 60% 이상, 1000g 미만에서는 약 90% 이상이 생존하여 국내 · 외 최고수준의 의료기술을 갖추고 있다.



산재의료기관 평가에서 종합병원 2위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산재의료기관 500개소를 대상으로 작년 11월 시행한 산재의료기관 평가에서 ‘종합병원 부문 2위’를 차지했다. ‘종합병원 부문 2위’는 근로복지공단이 90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이며, 본원이 산업재해 치료에 준비된 병원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산재보험 우수 의료기관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1년 동안 공지되며, 우수기관 홍보물로 제작되어 배포하게 된다. 한편,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의료의 질 향상’ 촉진을 위해 산재의료보험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산재의료기관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산재의료 서비스 구조, 과정, 결과 등 40여 개 조사항목을 평가하고 있다.



광동학원과 지정의료기관 협약 체결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4월 1일 남양주에 위치한 광동학원(이사장 일면 스님)과 지정의료기관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앞서 광동학원과 동국대학교병원 임직원은 양 기관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하기로 약속했으며,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광동학원 교직원과 학생들은 동국대학교병원의 최신 의료서비스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광동학원 이사장 일면 스님은 축사에서 “이번 협약이 내 몸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는 전환점이 되고, 양 기관의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좀 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광동학원은 의정부에 광동고등학교, 남양주에 광동중·고등학교를 두고 있으며 역사와 전통이 있는 지역명문학교이다.



‘2015년 상반기 부서장 워크숍 및 미래전략위원회 착수보고회’ 열어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일산한방병원은 3월 6일 바이오메디캠퍼스 약학관 1층 대강당에서 2015년 상반기 부서장 워크숍을 열었다. 이번 워크숍은 이진호 의료원장 등 기관장과 중간관리자 약 100여 명이 참석하여 2015년 경영목표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책임 경영 실행에 중점을 두어 진행했다. 본원은 올해 개원 10주년을 맞이하는 의미있는 해로 앞으로 지속적 성장을 위해 지난 2월 미래전략위원회를 발족했고, 4개의 분과로 구성된 미래전략위원회는 이날 워크숍에서 본원의 미래성장동력과 가치를 키울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이진호 의료원장은 “전 교직원들이 각자 분야에서 최고의 주인공이 되어 핵심역량을 발휘할 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고객감동을 창출하는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이정표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한국심장재단과 협력병원 계약 체결, 저소득가정 심장수술 지원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탁월한 개심술 성적과 많은 수술 건수를 바탕으로 한국심장재단과 심장수술비 지원 협력병원 계약을 체결하고 저소득가정의 심장수술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선천성 또는 후천성 심장병으로 치료 중인 저소득 환우들이 본원 의료서비스를 받고 건강한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돕는 의미 있는 사업이다. 지원은 만 75세 이하 단순 선천성심장병(ASD, VSD, PDA)과 후천성 심장병을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수술비와 수술을 위한 정밀검사비를 지원하게 된다. 한국심장재단의 수술비를 지원받으려면 본원 홍보외과 또는 사회사업실에서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다. 한국심장재단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치료받지 못하고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 심장병 환자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단체이다. 문의 ▶사회사업실 031-961-8360, 8361



생명을 위한 아낌없는 투자

소장내시경 장비 도입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소화기병센터 검사실은 경기서북부지역 최초로 소장내시경을 도입했다. 소장내시경은 주로 원인 미상의 위장관 출혈, 빈혈, 복통, 소장암, 크론병(Crohn's disease) 등에 유용하며, 캡슐내시경과 달리 직접 병변을 관찰하여 조직검사와 치료가 가능한 검사 방법이다.

소장내시경 검사는 내시경 말단에 부착된 풍선을 부풀리고 소장벽에 고정해 소장을 잡아당기면서 내시경을 밀어 넣는 방식으로 검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소장의 조직검사, 용종절제술 및 지혈 등 소장 질환을 직접 치료하는 장점이 있다.

수술실 ‘Digital Mobile C-Arm System’ 가동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수술 후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빨라 최근 인기가 커지고 있는 최소 침습을 통한 혈관 내 시술(Endovascular procedure)이 증가함에 따라 ‘Premium Digital Mobile C-Arm System’(OEC 9900Elite 12인치)을 추가로 도입했다. 이번에 도입한 장비는 이미지(영상) 증폭관인 ‘Image Intensifier’의 크기가 12인치로 현재 본원이 2대 보유하고 있는 9인치보다 커 대동맥 수술 또는 그 외 사지 혈관 수술 시행 시 모든 부위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단 한 번의 조영제 주사로 사지 혈관 촬영을 할 수 있어 Angio장비와 비슷한 효율과 영상구축이 가능하다.

체외충격파치료기(ESWT) 도입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재활의학과는 근골격계 통증 치료의 근본적 치료가 가능한 ‘체외충격파치료기(ESWT)’를 도입하고 가동에 들어갔다. 본 장비는 충격파를 통해 손상된 조직의 재생을 자극하여 근골격계의 퇴행성 병변과 무리한 운동으로 인한 힘줄의 파열, 관절 주위의 석회화 등을 치료하는 장비이다. ESWT는 이미 15년 전부터 미국 FDA승인을 받아 선진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만성적인 힘줄, 근막 통증에 효과가 탁월하여 일부 수술을 대체할 수 있다. 이 시술은 절개나 체내기구 삽입이 필요 없는 비침습적 치료로 마취가 필요 없고 부작용이 적어 반복적인 치료가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또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시행할 수 있다.

DUMC NEWS

동국대학교경주병원
동국대학교경주한의원

카드무인수납기 설치로 고객 편의 제공



동국대학교경주병원에서는 최근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카드 무인수납기 3대를 도입하여 가동 중이다. 이번에 도입한 무인수납기는 신용카드 전용으로 결제가 가능하며, 2대는 2층 로비, 1대는 신관 로비에 설치되었다. 무인수납기가 당일 진료비 수납 및 원외 처방전 발행업무에 대신함에 따라 고객들의 수납 대기시간이 단축되어 고객 만족서비스 향상이 전망된다. 또한, 고령환자나 무인수납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들을 위해 수납기 앞에 안내도우미를 배치하여 도움을 주고 있다. 이동석 병원장은 “앞으로 본원을 찾는 지역민들에게 질 높은 최상의 의료서비스뿐만 아니라 양질의 고객서비스로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혈액종양내과 3월 1일부로 진료 재개

동국대학교경주병원 혈액종양내과는 3월 1일부로 신규 교원을 초빙하여 진료를 개시했다. 2014년 5월부터 10개월간 교수 부재로 진료를 하지 않았던 혈액종양내과는 새로 부임한 최연악 교수로 인해 2015년 새학기를 활기차게 출발하게 되었다. 혈액종양내과는 혈액내과와 종양내과로 나누어지는데 혈액내과는 빈혈, 백혈병, 골수이형성증, 골수증식성질환, 자반증, 혈액응고질환, 출혈성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한다. 종양내과는 전신에 발생하는 암의 진단과 치료계획을 수립하여 완치와 생존기간 연장을 위한 전문치료를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혈액종양내과는 혈액질환 및 모든 종양질환을 망라한 광범위한 영역의 환자를 진료하게 된다.

2015년 상반기 의료관광 우수병원 간담회 개최

동국대학교경주병원 힐링홀에서 3월 6일 ‘2015년 상반기 의료관광 우수병원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간담회는 경상북도 의료관광 우수병원 해외환자 유치 업무 담당자 및 해당 의료기관 등 13명이 참석하였으며, 병원별 외국인환자 유치 2014년 주요 성과와 2015년 계획에 대해 발표 및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의료기관 인증제 설명회 개최

동국대학교경주병원 3월 18일 의료기관 인증제를 대비하여 인증제의 이해와 기본교육 과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목적과 인증 사이버 교육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교직원들에게 교육을 청취할 것을 당부했다. 의료기관 인증제란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증을 통한 의료기관이 의료서비스 제공과정에서 환자 안전의 수준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자발적·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사랑나눔 도서바자회 개최

3월 16일부터 28일까지 동국대학교경주병원 로비에서 사랑나눔 도서바자회를 진행했다. 이번 바자회에서는 유·아동용 스테디셀러, 소설, 요리, 건강 등 500여 종의 도서가 선을 보였으며, 시중가보다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어 고객들의 호응이 높았다. 또한 도서 판매 수익금의 일부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환우들을 위해 사용되었다.



통증이 적은 연성방광내시경 도입

동국대학교경주병원 비뇨기과에서는 통증이 적은 연성방광내시경을 도입했다. 연성방광내시경은 요도를 통해서 방광까지 내시경을 삽입시켜 요도협착, 요도결석, 혈뇨, 전립선비대증, 방광암, 방광결석 등을 진단하거나 요관의 막힘이나 요관 및 신장의 형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역행성 신우요관 조영술 촬영시 사용하는 고가의 부속장비이다. 장점은 통증이 적으며, 자세가 불편한 환자에게도 시술이 가능하고 렌즈의 방향을 자유롭게 돌릴 수 있어 방광 내부를 골고루 관찰하여 정확한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다.

신생아 살리기 모자뜨기 캠페인

‘세이브 더 칠드런(Save the Children)’의 신생아 살리기 모자뜨기 캠페인이 2월 23일부터 27일까지 동국대학교경주병원 로비에서 진행되었다. 세이브 더 칠드런은 1919년 설립된 이래 전 세계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국제 협력사업, 아동학대 예방치료사업, 희귀난치성 질환 아동 수술비 지원, 결손빈곤가정 아동 후원사업,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사업, 아동 상담전화와 놀이치료실, 종합복지관과 어린이 집)을 진행·운영하고 있는 국제 아동 권리 전문기관이다.



DUMC NEWS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영올드세대의 건강’ 건강강좌 개최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과 분당구 정자동은 2월 23일 오전 정자동 주민센터 2층에서 ‘영올드세대의 건강’이라는 주제로 건강강좌를 개최했다. 김장현 병원장의 강의로 진행된 강좌는 수명이 길어지면서 60~75세의 연령대가 젊음과 늙음의 사이에 위치해 있다는 의미로 새로 생긴 ‘영올드세대’의 건강관리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영올드세대의 대표적인 질환인 성인병과 대사증후군의 예방방법, 진단기준, 합병증과 일상생활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기초대사량을 늘리는 방법 등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을 가졌다.



‘빠른 쾌유 빌어요’ 여우별 음악회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은 3월 7일 1층 로비에서 환우들의 빠른 쾌유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4회 환우를 위한 여우별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음악회는 계원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의 가야금, 해금, 첼로 등의 악기연주와 성악 공연으로 이뤄졌다. 김죽파류 가야금 산조, 성금련류 가야금 산조 중모리와 영화 ‘노팅힐’

‘일 포스티노’ 및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의 OST 등 10여 곡의 다채로운 음악을 환우와 보호자, 내원객에게 선사했다. 여우별 음악회는 굿은날 잠깐 보이는 별을 뜻하는 여우별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음악으로 위안을 주고자 지난해 6월부터 꾸준히 개최해 오고 있다.



한솔종합사회복지관 무료 진료 실시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은 2월 10일 성남에 위치한 한솔종합사회복지관에서 독거노인 등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실시하였다. 이날 진행된 무료봉사는 한의사, 간호사, 한약사 등 총 5명이 참여했으며 한방치료와 한방약을 처방하는 등 진료 내내 설 틈 없이 성황을 이루었다.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은 15년째 복지관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매월 무료 진료봉사를 실시하고 있다.

제1회 환우힐링 색소폰 연주회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로비에서 환우를 위한 색소폰 연주회를 열었다. 이날 연주회는 ‘초원의 메아리’팀이 무대에 올라 색소폰 합주와 노래를 선보였으며 ‘필레꽃’과 ‘강원도 아리랑’ 등 따라 부르기 쉬운 트로트와 민요 등을 선곡해 환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김장현 병원장은 “우리 병원을 찾는 내원객과 입원 환자들에게 활력을 주고 몸과 마음이 편안하게 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색소폰연주회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DUMC NEWS

동국대학교의과대학
동국대학교한 의과대학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의료원 전략회의 열어

동국대학교의료원은 고양시에 있는 ‘동양인재개발원’에서 3월 13일부터 14일까지 1박 2일에 걸친 전략회의를 열었다. 이번 전략회의는 의료원 산하 기관장과 주요 보직자 36명이 참석하여 2014회계연도 경영성과와 2015회계연도 의료원경영 기초를 공유하고,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진호 의료원장은 교직원들의 고령화로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다며 조직이 상생할 수 있는 win-win 전략방안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또한, 어려워지는 의료환경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기관별(의료원, 일산, 경주, 분당) 대처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이를 통해 선제적인 위치에서 더욱 발전하는 병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4·19혁명기념 동국인 등산대회

4·19혁명 55주년을 기념하는 제35회 동국인 등산대회가 4월 10일 남산에서 개최됐다. 이번 등산대회는 과거 민주화를 이루고자 했던 4·19의 참 뜻을 되새기고 동국인의 화합

과 자긍심을 고양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의과대학 의학과·간호학과, 의학전문대학원 학·석사통합 과정의 3학년 학생을 포함한 많은 교직원, 동문 등이 참가하여 통일전 → 이영재 → 정상 → 전망대 → 계능바위 → 포석정 → 삼릉으로 이어지는 등산코스를 함께했다. 하산 후에는 참석한 교수님들과 학생들간의 대화의 장이 마련되어 더욱 의미있는 등산대회가 되었다.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신홍묵 교수
“알약처럼 쉽게 먹는 한약 개발한다”

지난해 10월 한방산업진흥원장으로 취임한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신홍묵 교수는 한약을 알약이나 가루약으로 만들어 편리하게 복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다고 밝혔다. 신 원장은 한약의 효과가 높더라도 사용이 불편하면 대중적인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보고 한약을 편리하게 휴대하면서 쉽게 복용하는 방식에 많은 연구와 공을 들였다. 조만간 탕약의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알약이나 가루약처럼 쉽게 복용할 수 있는 한약을 개발하면 한약의 국가경쟁력은 더욱 높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눔의 동행

운문사승가대학 흥륜 스님과 7회 동문 스님들의 아름다운 회향
동국대학교의료원에 발전기금 1억 원 전달

운문사승가대학 흥륜 스님은 7회 동문 스님들과 뜻을 모아 4월 27일 동국대학교의료원 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동국대학교일산병원과 동국대학교경주병원에 각각 7천만 원과 3천만 원, 총 1억 원의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흥륜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을 사회에 회향하고자 미안마에 학교건립 등을 추진하기 위해 동문 스님들과 함께 원력을 모으는 가운데 그 중의 일부를 먼저 동국대학교의료원에 전달했다. 이진호 의료원장은 “무주상보시를 몸소 실천하신 스님의 아름다운 회향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동국대불교병원의 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소중히 사용하고 자비인술을 실천하는 병원으로 전교직원이 악왕보살로서 더욱 정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주지역 금속사용자협의회/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에서
사회사업기금 500만원 기탁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은 경주지역금속사용자협의회 및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노사가 함께하는 사회공헌기금 전달식에서 사회사업기금으로 500만원을 전달받았다. 사회공헌기금 전달식은 경주지역 금속사용자협의회 소속 현대, 기아자동차 부품업체 9개사의 노사가 지난 2012년 경주지부 집단교섭에서 '지역사회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기금 조성'이라는 내용에 합의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번에 전달받은 기금은 불우한 환자나 가정형편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노동자 등을 위해 쓰여지게 된다.



동국대학교의료원의 발전을
염원하는 큰 뜻 !
자비 나눔으로 동참해주십시오.

동국대학교의료원과 함께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동행,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의 숭고한 뜻에 보답하기 위해 동국대학교의료원은
약사여래부처님의 12대원을 실천하고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발전기금 사용처

- 의료, 교육 환경 개선
- 의료장비, 임상실험 기자재구입 등
- 학술연구, 장학기금
- 불우환자 지원
- 기타 병원 및 의과대학, 한의과대학의 발전

발전기금 안내

- 동국대학교의료원을 아껴주시는 분은 누구나 참여 하실 수 있습니다.
- 후원금은 현금, 주식, 기타자산이나 부동산, 귀중품 등 어떠한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 기부하신 후원금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후원금은 우선 약정하시고 추후 납입하셔도 됩니다.

기부자 예우

구 분		의료비 감면					
		건강검진 (년 1회)	진료비 (외래입원 본인부담금)	주치의	한방보약	영안실	비 고 (진료비 무료 연간 적용기간)
회원예우	누적기부총액	본인(배우자)	본인(배우자)	본인	본인(배우자)	본인(배우자)	
다이아몬드	50억	무료(무료)	무료(50%)	배정	무료(50%)	무료(무료)	연간 180일 이내(입원)
에메랄드	10억	무료(무료)	무료(50%)	배정	50%(50%)	무료(무료)	연간 90일 이내(입원)
사파이어	5억	무료(무료)	무료(20%)	배정	50%(30%)	50%(50%)	연간 90일 이내(입원)
루비	1억	50%(50%)	20%(20%)		20%(20%)	30%(30%)	
도세/자애	5천만원	30%(20%)	20%		20%(20%)	20%(20%)	
신실/섭심	1천만원	20%(20%)	15%		20%(20%)		
	1백만원		10%				

1. 상기 내용 중 배우자는 기부자 생존시까지로 한정됩니다.
2. 영안실은 시설사용료에 한하며, 상기 내용 중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기관에서 따로 정한 바에 따릅니다.
3. 진료비와 한방보약의 감면은 별도로 적용되며, 한방보약은 직접비용 이외의 목적으로 처방받을 수 없습니다.

후원 문의

동국대학교의료원 전략기획팀 대외협력담당

▶ TEL 031. 961. 5715 FAX 031. 961. 5719 e-mail dumcco@dumc.or.kr

동국대학교일산병원 ·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CS경영팀

▶ TEL 031. 961. 9362 FAX 031. 961. 9369 e-mail kingdom@dumc.or.kr

동국대학교경주병원 · 동국대학교경주한의원 기획예산팀

▶ TEL 054. 770. 8126 FAX 054. 770. 8500 e-mail dumccs@dumc.or.kr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원무팀

▶ TEL 031. 710. 3718 FAX 031. 710. 3780 e-mail dumcbh@dumc.or.kr

DUMC 인사·동정

정형외과 임균일 교수, 국제 골관절염 연구학회 상임이사 선출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정형외과 임균일 교수는 국제 골관절염 연구학회 (Osteoarthritis Research Society International: OARSI) 상임이사(Board of Directors)로 선출되어 4년간 활동한다.

OARSI는 정형외과분야에서 가장 영향지수가 높은 저널인 Osteoarthritis and Cartilage(Impact factor:4.6)를 발행하는 학회로 매년 4월 열리는 학술대회에는 골관절염과 연골재생을 연구하는 전 세계 석학들이 참석한다. 현재 전 세계를 대표하는 14명의 이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임 교수를 포함하여 2명의 이사가 활동하고 있다.

소화기내과 임윤정 교수, 조기위암 발견율 70% 이상임을 밝혀내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소화기내과 임윤정 교수와 강지혁 전문의 연구팀은 2005년부터 7년 동안 국가암검진으로 위내시경을 받은 수검자 4만 명을 전수 조사해 위암 조기발견의 중요성을 밝힌 논문을 발표했다.

본 논문은 연구 우수성을 인정받아 국제저명 학술지인 'Gastroenterology Research and Practice, 2015'에 게재되었다. 임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위암 중 조기위암 비율은 1995년 14.9~28.6%, 1999년 32.8%이었으나, 본원에서 시행한 국가암 검진 위내시경에서는 전체 위암 중 조기위암 발견율이 무려 70%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성형외과 정규용 교수, 경북의사회 해외봉사상 수상



동국대학교경주병원 성형외과 정규용 교수는 3월 21일 호텔인터볼고에서 열린 경상북도의사회 제6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해외봉사상을 수상했다.

성형외과 정규용 교수는 매년 해외의료봉사에 힘쓰고 있으며, 2014년에는 네팔 해외의료봉사에 참여하였다.

정규용 교수의 전문진료분야는 유방성형, 안면윤곽, 3차원 코성형, 비중격수술, 주름성형, 눈성형, 보톡스, 필러 등으로 성형분야의 권위자이다.

동국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내역

동국대학교의료원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5. 2. 1 ~ 2015. 4. 31

홍륜 스님	₩100,000,000	정태영	₩3,000,000	대신송촌문화재단	₩1,413,540
지엄 스님	₩10,000,000	한국이주민건강협회	₩3,000,000	정태승	₩1,200,000
재호 스님	₩7,000,000	박영근	₩2,480,000	나경란	₩1,071,200
경주금속노사협의회	₩5,000,000	대구경북의사회	₩2,000,000	이애영	₩1,001,600
밀알복지재단	₩5,000,000	이명규	₩2,000,000	법천 스님	₩1,000,000
영진 스님	₩3,000,000	청소년문화가자	₩2,000,000		

강기선	권범선	김미숙	김아름	김정형	김호준	박대희	박정화	서희복지 공동모금회 (충남지회)	신미정	오성은	윤혜진	이수환	이정현	인준용	정경윤	정진희	주지연	최인영	허희진
강도림	권병철	김미숙	김아람	김정훈	김화평	박동우	박종임	신석재	오수진	윤효영	이순애	이정화	임균일	정경은	정태민	지선영	최인주	현미숙	
강미소	권보경	김미영	김어진	김종만	김효주	박동진	박종현	신성준	오영섭	이강현	이순희	이정훈	임나현	정경철	정하영	지영한	최정민	형 욱	
강병경	권삼숙	김미영	김연선	김종은	김희동	박영조	박주영	서미경	신승민	오유라	이강훈	이승덕	이정희	임동욱	정갈식	정한숙	진경애	최정숙	홍경희
강보라	권성애	김미옥	김영권	김종화	김희선	박미순	박주현	서상연	신익섭	오유리	이경미	이승민	이정희	임동주	정다솔	정혁수	진선희	최정현	홍민재
강보민	권성욱	김마진	김영근	김주광	김희섭	박미연	박준형	서영문	신연실	오은경	이경미	이승욱	이종득	임민주	정다영	정현주	진영숙	최정현	홍민희
강석진	권소연	김미현	김영미	김주현	김희영	박미경	박종희	서영미	신영식	오이슬	이경애	이승철	이종은	임민혜	정다운	정현주	진영조	최정화	홍보람
강석진	권신영	김미희	김영미	김주희	김희진	박보경	박지숙	서영완	신영주	오정무	이광훈	이승철	이종잡	임신희	정명희	정혜은	진효재	최종기	홍성희
강선영	권오형	김민선	김영복	김지나	나소영	박상용	박지현	서영진	신윤주	오종현	이규슬	이승현	이종찬	임성우	정미라	정혜은	차수남	최종민	홍수민
강선주	권윤경	김민아	김영은	김지예	나용용	박상은	박지혜	서 은	신은정	오진숙	이귀숙	이승호	이주영	임성진	정미선	정혜진	차옥련	최주은	홍승관
강소영	권일진	김민영	김영은	김지원	나정용	박석원	박지홍	서은정	신은희	오진영	이규섭	이안재	이주은	임성희	정미숙	정호근	채기수	최준권	홍승욱
강수영	권재현	김민정	김영진	김지윤	나 현	박선양	박진솔	서 준	신진경	오지훈	이규욱	이연희	이주현	임세원	정민기	정효진	채봉희	최준용	홍유신
강연주	권준성	김민호	김영진	김지현	남기연	박선영	박진우	서준석	신현모	오현주	이규홍	이영수	이주현	임수완	정보경	정희경	채석래	최진영	홍은기
강예은	권지윤	김민호	김영진	김지현	남세영	박선옥	박창훈	서 찬	신해란	오혜민	이근영	이영실	이주형	임윤복	정사라	정희정	채송아	최창익	홍은수
강은경	권태용	김민희	김영철	김지혜	남소미	박성림	박철중	서휘경	신효숙	왕지혜	이나현	이영찬	이주희	임윤성	정상욱	정희진	채은미	최한기	홍은희
강은정	권혁미	김방희	김영혜	김지호	남유화	박성미	박준근	서희주	심문주	우선애	이남영	이용석	이준규	임윤정	정석화	조계중	천만종	최한석	홍이내
강이일	권현주	김병철	김영화	김지훈	남재은	박성연	박현미	석상원	심미나	우소희	이남주	이용석	이준길	임윤희	정선미	사희관	천보혜	최해송	홍주혜
강인선	권해림	김보미	김영선	김진규	남현미	박성원	박현수	석수진	심영진	우 정	이다혜	이용우	이지선	임은정	정선희	청명스님	최해윤	홍호진	
강지영	권효숙	김보연	김용배	김진아	남혜경	박성주	박현숙	석진희	심혜정	우종필	이동백	이용찬	이지연	임종대	정세연	조광용	최경아	최현미	황동철
강지혁	권희경	김보영	김용석	김진영	남화연	박성주	박현영	설항미	안가혜	유경미	이동영	이윤경	이지연	임종수	정세희	조근태	최경자	최혜숙	황민혜
강현우	권희재	김보은	김용숙	김창렬	노미경	박성혜	박현정	성경숙	안광삼	유성일	이말보	이원용	이지연	임하연	정소영	조다현	최경희	최혜정	황보미
강희구	김갑성	김상기	김우경	김 철	노주원	박세원	박현주	성낙진	안도화	유세정	이민경	이원호	이지연	임하영	정숙희	조동삼	최나림	최희정	황보미영
견유영	김경민	김상규	김원영	김철주	노태훈	박세진	박현주	성효은	안민아	유소라	이명묵	이유나	이지영	임현민	정소탁	조민아	최동준	추경란	황보수진
경보호	김경수	김상균	김유일	김치선	노혜진	박세환	박현주	소선기	안선영	유수림	이명숙	이유라	이지영	임현진	정승은	조민주	최동훈	추경희	황세연
고기연	김경아	김상섭	김유정	김태규	노현규	박소기	박소기	안상희	유영석	이현종	이명종	이지현	자비나	정소택	정소택	조민지	최영렬	택서기	황윤정
고기환	김경옥	김상아	김윤정	김태균	도한호	박송이	박혜진	소은숙	안승원	유은정	이명희	이윤상	이지은	남세상	정승현	조민철	최문진	표정옥	황인봉
고문수	김경호	김상필	김윤주	김태선	동 국 대	박송주	박혜진	소은진	안연연	유재일	이무용	이윤석	이지은	장태현	정승현	조상은	최민희	하민영	황정아
고민정	김경희	김상한	김윤지	김태수	경주병원	박수복	박혜진	소정자	안영길	유정일	이문정	이윤정	이지현	장미현	정여진	조상현	최민선	하연주	황정희
고성용	김관영	김새롬	김윤진	김태영	동 천 동	박수혁	박효민	소행연	안주향	유정화	이미영	이윤형	이지혜	장민욱	정영규	조상현	최민아	하정희	황지나
고수정	김광기	김서영	김윤창	김필자	주민센터	박수희	박효진	손귀득	안지은	유주형	이미희	이윤희	이지혜	장 승	정연직	조선희	최민정	하준석	황태규
고원영	김국현	김선경	김율리	김하겸	류가영	박숙희	박희영	손금영	안지현	유지영	이민선	이은경	이 진	장순희	정연호	조성민	최민지	하현지	
고은미	김광영	김선주	김은미	김하나	문정현	박순양	방대혁	문기원	안창현	유지은	이민우	이은미	이진호	장연화	정영애	조승호	최병곤	한강민	
고은하	김남희	김선희	김은아	김한성	류대안	박순자	방영일	손민정	안현미	유지혜	이민정	이은자	이채원	장유민	정영옥	조아름	최보운	한국백병 어린이재단	
공성화	김다인	김선희	김은애	김해민	류봉하	박승선	방정아	손수원	안현정	유진희	이병기	이은정	이채형	장윤정	정영희	조용민	최보윤	한국실영	
곽경아	김대봉	김성권	김은영	김해인	류위선	박신남	방현선	손은미	안희택	유창국	이병훈	이은주	이태영	장을재	정예지	조유미	최상돈	한국실영	
곽범석	김도연	김성아	김은정	김해정	류윤호	박신애	배경민	손정민	양경송	유창선	이보용	이은진	이하영	장인규	정운영	조윤미	최석예	예병재단	
곽필희	김도현	김성원	김은주	김현덕	류주희	박아름	배기향	손정화	양승업	유하나	이상경	이은하	이혜원	장종섭	정원기	조은영	최성규	한도연	
곽현재	김도현	김성일	김은희	김현경	마주희	박아연	배재아	손정화	양리주	유혜정	이상이	이인화	이향년	장태영	정윤정	조은정	최성미	한영희	
곽희재	김동수	김세린	김이경	김현서	모종은	박영진	배미정	손주연	양재준	윤금섭	이상현	이일수	이향미	장하리	정윤정	조인선	최소영	한미진	
곽희재	김동익	김세린	김이수	김현수	무구스님	박완임	배상만	손주영	양지영	윤민지	이상형	이자경	이현경	장형렬	정은경	조일새	최수진	한소연	
구기형	김동일	김세민	김이재	김현정	문상원	박용진	배서영	손희진	양지영	윤복연	이상환	이재경	이현경	장혜진	정은주	조 현	최영아	한송이	
구남이	김동환	김세희	김이향	김형관	문선희	박수경	배수현	문선희	여수락	윤상도	이상훈	이재우	이현정	장호근	정은지	조현선	최영은	한영희	
구병수	김동훈	김소원	김일화	김형석	문한희	박은경	배윤석	송미리	엄희경	윤상호	이새롬	이재욱	이현주	전난아	정은지	조현아	최영진	한용수	
구복식	김라다	김소진	김재학	김형수	문효남	박은경	배은영	송우경	여강욱	윤소영	이선아	이재향	이현희	전다솔	정이선	조혜원	최영택	한윤희	
구수연	김말영	김솔아	김정목	김형진	민경임	박은경	배정범	송은호	여민영	윤수임	이선영	이재환	이형경	전두호	정민수	조혜정	최예지	한은숙	
구순정	김명규	김수린	김정미	김해경	민상연	박은영	배효상	송좌근	여민혁	윤여진	이선희	이재희	이혜근	전미은	정인영	조혜진	최원경	한은숙	
구준범	김명숙	김수아	김정미	김해미	민은지	박은주	백승진	송해정	여정석	윤영순	이 설	이정미	이혜숙	전수현	정인원	조혜진	최원용	한은숙	
구효정	김명희	김수정	김정민	김혜연	민주현	박일향	백승진	송화진	여취경	윤정미	이소라	이정백	이혜영	전숙진	정재우	조혜진	최유안	한인용	
국종돈	김무중	김수정	김정배	김혜연	민 희	박지혜	백용해	정은진	여정은	윤정분	이소영	이정연	이호석	전인수	정재현	조효순	최윤영	한정훈	
권기현	김문식	김수진	김정숙	김해정	박경림	박재경	백유진	신경수	염은정	윤정수	이소영	이정우	이호준	전종병	정주완	주미향	최윤혁	허남탁	
권도윤	김미경	김숙향	김정연	김해정	박경문	박재현	백윤정	신나리	오미경	윤정순	이수라	이정하	이희용	전주영	정지애	주봉림	최윤호	허은경	
권동현	김미정	김순기	김정연	김재효	박경민	박재현	백지현	신대규	오미정	윤정원	이수은	이정하	이희주	전진영	정지원	주성재	최은영	허정현	
권두경	김미성	김시연	김정연	김해정	박 관	박재희	변재욱	신동환	오민규	윤태	이수철	이정하	이희진	정경숙	정지유	주은명	최은정	허 준	
권미정	김미송	김아람	김정은	김혜진	박기철	박정숙	변해수	신명수	오상우	윤형근	이수현	이정혁	인승순	정경식	정지혜	주주환	최은진	허하림	

기부자 인적사항

성 명 (기관명)	(대표자 :)	☐ 익명요청 (모든 홍보물에 익명으로 표시)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생년월일	년	월	일 (양/음)
본 의료원과의 관계 (※ 중복 체크 가능)	☐ 일반 ☐ 동문 (입학년도 :)	☐ 불교계	☐ 교직원 대학(원) :	☐ 기업/단체 전공 :	☐ 기타 () ()
직장명	부서		직위		
우편물 수령주소 (우편번호 -)					☐ 자택 ☐ 직장
휴대폰번호	유선전화				
이메일	기부 추천인				

약정

약정액	현금	원 (₩)	☐ 현물기부(원)상당				
약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월()원씩 / 총()회
기부금 용도	☐ 의료원발전기금위원회 일임 ☐ 병원발전기금 (☐ 일산병원 ☐ 경주병원 ☐ 분당한방병원) ☐ 학교발전기금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 지정기금 (지정)						
기부의견							

납부방법

본인 자동이체 신청	월정기납 : 매월 ()일	예금주 : 이체은행 :
본인 자동이체 신청은 본인이 직접 은행에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가까운 은행에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무통장입금	입금방법 (☐ 일시납 ☐ 분납)	입금자명 : ☐ 입금계좌 : 국민은행 778037-00-000011 예금주 : 동국대학교의료원(일산)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202-076965 예금주 : 동국대학교의료원(경주) ☐ 입금계좌 : 국민은행 368137-01-001162 예금주 : 동국대학교의료원(분당)
급여공제	사번 : (※ 재직 교직원에 한함)	
정보 동의	☐ 약정서에 기재된 개인정보와 기부금 납입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행과 기부자관리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위와 같이 기부(약정)합니다.

20 년 월 일

기부(약정)인 :

서명(인)

동국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귀하

- 동국대학교 의료원에 출연하신 기부금은 나눔의 기쁨과 더불어 소득공제의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약정서 송부 : 주소 ▶ (410-820)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32 / 이메일 ▶ dumcco@dumc.or.kr / 팩스 ▶ 031-961-5719
- 문의 : 동국대학교의료원 전략기획팀 대외협력담당 031-961-5715

보내는 분

주소

연락처



건강하고 행복한 **동행** 동국대학교의료원 MAGAZINE 2015 Summer | VOL. 3

받는 사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32

동국대학교의료원

전략기획팀 대외협력담당

4 1 0 8 2 0

“고려대학교 의료원 후원하기 바로 ‘동’ 글 극의료품 제공품 제공품제공제공”

문/최민호, 최현우, 최은하
윤세, 극의료품 제공품



이곳에 풀칠하세요.

정
제
선



Life Care Partner

동국대학교병원 건강검진 프로그램

건강은 타고 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사람의 선택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각 진료과 전문 의료진과 최첨단 의료장비로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지향
- 동서양 의학 접목을 통해 각 개인별로 차별화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적용
- One stop system 건강진단 실시로 당일 건강진단 후 신속한 당일결과 상담(판정) 가능
- 고객이 선택 가능한 다양한 건강검진 프로그램
- 건강검진 후 위험인자나 질병 발견 시 지속적인 사후관리

동국대학교일산병원 ·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건강증진센터 건강검진 프로그램

기본검진	기본종합검진은 비교적 건강한 일반 성인에게 필요한 검사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다른 특별한 건강상 문제없이 건강관리를 희망하시는 분들께 권해드립니다.
정밀검진	기본형에 추가로 소화기질환, 심혈관질환, 폐질환, 그리고 남성 및 여성 질환, 성인병 예방 및 발병률이 높은 각종 암에 대한 조기검진을 위한 고급형 검진 프로그램입니다.
프리미엄 속박검진	다양하고 정밀한 검사항목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으로 짧은 시간에 검사하기 어려운 노약자, 지방거주자 및 편안하고 여유롭게 검사하고자 하는 수검자에게 유용한 프로그램입니다.
생애주기별	예비신랑·신부검진, 청소년검진, 장수검진 등 생애 주기별 질환을 체크할 수 있는 맞춤 검진 프로그램입니다.
상담 및 예약	031. 961. 7698~9, 7702 인터넷예약 ▶ http://www.dumc.or.kr/hpc/ 예약시간 ▶ 평일 오전 8시 ~ 오후 4시

동국대학교경주병원 국제힐링센터 건강검진 프로그램

기 본 종합검진	기본종합검진은 비교적 건강한 일반 성인에게 필요한 검사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다른 특별한 건강상 문제없이 건강관리를 희망하시는 분들께 권해드립니다.
프리미엄 종합검진	기본형에 추가로 소화기질환, 심혈관질환, 폐질환, 그리고 남성 및 여성 질환, 성인병 예방 및 발병률이 높은 각종 암에 대한 조기검진을 위한 고급형 검진 프로그램입니다.
플래티늄 종합검진	프리미엄 종합검진에 뇌혈관질환까지 확인할 수 있는 VIP를 위한 가장 최고급 종합검진입니다. 주요 암질환과 각종 위험인자를 광범위하게 정밀진단하는 최상의 프로그램입니다
특 화 종합검진	가족력, 이력 등에 따른 특화된 검진으로 개개인 질환을 체크할 수 있는 맞춤 검진 프로그램입니다.
상담 및 예약	054. 770. 1430~3 인터넷예약 ▶ http://www.dumc.or.kr/gj 예약시간 ▶ 평일 오전 8시 30분 ~ 오후 5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문의

동국대학교일산병원 · 일산한방병원 031-961-7955 동국대학교경주병원 · 경주한의원 054-770-1400~1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031-710-3712/3781



세상을 비추는 **힘!** 세상을 깨우는 **이름!**

동국대학교의료원은 고객과 자비 중심의
건강한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의료원
dongguk university medical center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대표전화 1577, 7000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

동국대학교경주병원
동국대학교경주한의원

대표전화 054, 748, 9300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 87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대표전화 031, 710, 3700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268

동국대학교의과대학
동국대학교의학전문대학원

대표전화 054, 770, 2114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 123

동국대학교한의과대학

대표전화 054, 770, 2114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 123